



(카메라)

■ 삼성항공, 美인텔 디지털카메라 제휴

삼성항공이 미국의 인텔사와 디지털 카메라 부문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세계시장에 공동진출한다.

삼성항공은 세계최고수준의 반도체칩 생산업체인 인텔사와 새로운 규격의 디지털카메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약은 인텔사가 개발한 새로운 규격의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를 자체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삼성항공을 비롯해 대만과 싱가포르의 각 1개업체등 3개사만이 인텔의 제휴업체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세계 컴퓨터시장에서 인텔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세계 디지털 카메라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 삼성항공은 일본업체들과의 디지털카메라부문 주도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디지털카메라는 인텔사가 생산하는 컴퓨터에 적합하도록 표준화돼 상호호환이 쉬워진게 특징이다.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이 훨씬 간편해지고 PC로의 화상전송속도가 기존에 비해 20배이상 빠르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또 화상정보인식센서인 촬상소자를 종전(CCD)보다 한단계 앞선 CMOS를 사용, 가격이 기존에 비해 절반이하로 떨어지게 됐다.

삼성항공은 이 신규격디지털 카메라(모델명: Digimax)의 생산라인을 창원공장에 98년초까지 설치하고 98년 4월초부터 양산과 함께 본격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예상생산량은 약 25만대이다.

■ LG전자 보급형 디지털카메라 출시

LG전자가 보급형 디지털카메라 「아트샷(모델명 LDC-F25)을 출시했다.

36만 화소급 고체촬상소자(CCD)를 채용한 이 디지털 카메라는 1백80도 회전되는 1.8인치 액정모니터를 장착, 뷰파인더에 눈을 대지 않고도 사진촬영이 가능하며 4MB급 플래시 메모리에 최대 1백24장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 제품의 가격을 대당 65만9천원으로 책정했다.

LG전자가 디지털카메라를 본격 출시함에 따라 울들어 이 시장에 뛰어들든 국내업체는 삼성항공·삼성전자·한국통신 등 기존업체를 포함해 모두 4개사로 늘어났다.

■ 디지털 카메라시장 뜨겁다

-LG전자 등 대기업 속속 참여해 경쟁-

디지털 카메라시장에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는 정지영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메모리에 저장하는 첨단기기.

필름이 필요없는 카메라로 PC와 연결해 편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기능이 뛰어나 범용 멀티미디어 기기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코닥 후지 등 일부 전문업체가 제품을 생산해 시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내 삼성전자 삼성항공 코콤 등이 고기능 저가격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자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특히 LG전자가 30만원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디지털 카메라시장이 대기업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선보인 현대전자는 카시오사의 제품을 수입 판매해 선풍을 일으켰다.

렌즈를 통해 피사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 3인치 크기의 액정모니터를 통해 정지영상을 찍도록 한 것이 특징, 따라서 접안렌즈가 없다.

삼성전자도 올 7월 디지털 카메라를 선보여 지금까지 약 1만대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4MB의 메모리에 180여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

삼성항공은 41만 화소에 3배줌이 가능한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1월에는 인텔과 손을 잡았다. PC와의 활용을 더욱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질세라 LG전자도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 '아트샷'으로 명명된 이 제품은 컴퓨터 주변기기로서의 기능을 부각시켜 시장을 공략할 전략이다.

한편, 코콤 신도리코 한국코닥 등이 디지털 카메라를 공급하면서 카메라시장은 확대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97년에 6만대, 98년에는 15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PC주변기기 구실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현장 보존, 주정차위반 단속, 문화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외산 디지털카메라 '괴상공세'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닥·마쓰시타·엡슨·리코 등 외국의 디지털 카메라업체들은 1998년을 기점으로 국내 디지털 카메라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지사나 총판을 통해 해상도와 부가기능이 개선된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를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미국

코닥사는 97년 상반기 한국코닥을 통해 98만화소급 제품을 보급형 시장에 투입한 데 이어 최근 1백만화소급 신모델을 추가로 내놓았다. 코닥이 1백만화소급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것은 기존 필름 카메라에 비해 해상도가 크게 떨어지는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의 단점을 개선하면서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홍중하이텍과 총판 계약을 맺고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진출한 일본 마쓰시타는 최근 파나소닉 브랜드의 35만화소급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 2개 모델을 추가로 공급했다.

이번에 선보인 파나소닉 디지털 카메라는 본체 무게가 1백58g에 불과한 포켓형 모델과 노트북PC에 촬영된 이미지가 저장된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직접 삽입, 편집할 수 있는 모델로 사용편리성이 개선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 엡슨 역시 96년 말 설립한 한국엡슨을 통해 35만화소급 디지털 카메라를 선보인 데 이어 81만화소급 제품을 출시했다. 한국엡슨은 디지털 카메라와 연결해 사용하는 사진 출력전용 프린터도 삼보컴퓨터와 공동으로 판매하면서 디지털 카메라사업을 가정용 스튜디오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97년말까지 3만대 규

모로 예상되는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98년엔 10만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삼성항공·LG전자·한국통신 등 국내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할 예정이어서 국산제품과 외산제품 간 시장 쟁탈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아남전자, 아남인스트루먼트 합병**

아남전자가 그룹 계열사인 아남인스트루먼트를 합병한다.

아남전자와 아남인스트루먼트 합병은 그룹 내 계열사의 사업구조 조정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적자상태의 아남전자의 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남전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전자 완제품 생산 일변도의 사업에서 벗어나 더 부가가치가 높은 통신부문 반도체장비 통신장비제조 등의 부문으로 업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특히 높은 기술과 함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남정공에서 최근 사명을 변경한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통신 반도체장비 광학기계 등 3개 사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96년 매출 1,108억원에 당기 순익 5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97년 상반기에만 645억원의 매출과 49억원의 순익을 올릴

정도로 사업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는 통신부문에서는 무선통신기기용 집적회로와 무선통신(핸드폰)용 충전기, 반도체장비부문에서도 반도체 검사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 **이란, 정보시스템 수요 증가세 -전량수입의존-**

이란의 경보기 생산업체는 전무하여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란의 경보기 수입은 금액 면에서 매년 약 50%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94/95년 수입은 897만6천달러로 전년대비 39.4% 증가했으며, 93/94

년에는 전년대비 66.4%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일본, 대만으로 독일 및 일본산의 수입이 많은 이유는 다른 제품들과 같이 조기 시장진입으로 인지도를 높여 놓았기 때문이며 대만산의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국내제품 및 산업보호를 이유로 대부분의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TV카메라의 관세는 3%, CCTV는 15%, 도난경보기는 7%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은 수출실적이 미미한 데 바이어들에 따르면, 제품의

● 수입실적

(단위 : US\$ 천)

국 별	92/93	93/94	94/95
▶ TV 카메라			
독일	21	—	64
대만	—	—	13
홍콩	—	—	6
UAE	—	—	4
영국	16	39	2
기타	—	3	5
합계	37	42	94
▶ CCTV			
독일	212	61	482
일본	—	170	187
대만	128	—	165
한국	—	312	154
영국	—	21	91
기타	142	33	—
합계	482	597	1,079

현지 인지도가 낮고 또한 최소 주문량도 경쟁국인 대만 등에 비해 많아 수입주문이 어려우므로 소량주문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와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및 주재국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한 이란 L/C의 적극적인 수주가 요망된다.

경보기는 다른 제품과 달리 설치대상이 건물이나 차량등 고가품으로 거래시 가격보다는 품질 및 기술지원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현지 실정에 맞는 제품개발, 변경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공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란은 유통구조가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이루어 신규상품의 시장확대에 걸림들로 작용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 이란정부가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완제품에 대한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수입 관세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반면,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반제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에서 일련의 가공공정을 거친 제품의 본토반입 허용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므로 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한 대이란 시장확대와 더불어 인근 CIS국에 대한 우회진출 교두부로 현지 직접투자로 검토해볼만하다.

※수입상 명단

- Homa Part
P.O. Box 13245-363 Tehran
Tel : 98-21-642-2711
Fax : 98-21-643-4259
Contact : Mr. Jahanbakhshi
- Electronic Karan
Apt 1, 1st Fl., #147, Police St., Shariati Ave., Tehran
Tel : 98-21-844 620, 841 221, 850 623
Fax : 98-21-845 791
Contact : Mr. Mohseni
- Negah Saz Electronics
P.O. Box 34751-880 Tehran
Tel : 98-21-889 3714/5
Fax : 98-21-889 7105
Contact : Mr. Chinichian
- Telesonic
Hafez Bridge, Jomhuri St., Tehran
Tel : 98-21-645 7406
Fax : 98-21-649 9819
Contact : Mr. Zakeri
- Melody
P.O. Box 14111-493 Tehran
Tel : 98-21-645 7385
Fax : 98-21-645 7385
Cpmtact : Mr. Ezatian

헝가리, 소형 CCTV시스템 진출有望

-부품 수출통한 현지조립으로 경쟁력 제고해야-

헝가리에는 CCTV 시스템 완제품 생산업체가 전무해 전

량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CCTV 시스템 단순부품을 포함한 헝가리의 CCTV 시스템 시장은 연간 200만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형 CCTV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제품자체도 ISO 규격제품인 고품질, 유명브랜드제품을 찾고 있다. 고급 주택 및 일반상가에서는 1~5개의 카메라가 부착된 소형시스템에 중·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 볼 때 대형 CCTV 시스템과 소형시스템의 비중은 50 대 50이지만, 수량기준에서는 소형시스템의 수요가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요증가율도 역동적이다.

현지 카메라의 월수요량은 600~800대, 연수요량은 8천~9천대 정도이고 모니터의 월수요량은 400~500대, 연수요량은 5천~6천대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다페스트지역은 중동부유럽의 금융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외국의 금융업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관계로 CCTV 시스템 수요가 연간 25~3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이 마감되면서 사회질서의 문란으로 일반 가정용 CCTV 시스템 수요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 수입실적

(단위 : US \$ 천)

국 별	1994	1995	1996
▶ CCTV (HS 9007.11)			
독 일	190	167	190
일 본	9	21	95
오 스트 리 아	15	1	5
한 국	15	—	3
미 국	1	1	11
총 계	245	208	339
▶ CCTV 및 모니터(HS 8525.30)			
독 일	1,996	920	207
일 본	956	1,462	330
오 스트 리 아	1,933	459	143
화 란	41	1,049	25
이 탈 리 아	6	799	204
한 국	14	57	167
총 계	5,529	7,339	1,595

자료 : 헝가리 상공부 무역통계

CCTV 시스템 수출은 헝가리 수입상이 EU 및 극동국가에서 1차 수입해 루마니아 및 우크라이나 지역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실적의 의미가 낮은 편이다.

95년도 헝가리의 CCTV 시스템 수입실적은 전년대비 30.7%가 증가한 754만7천달러를 기록했다. 96년도에는 동일 HS Code의 공식 통계상으로는 전년대비 무려 74.3%나 감소된 193만5천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96년도 헝가리 정부에서 HS Code 재정비를 하면서 수입상들이 10%가 넘는 수입관세를 피하기 위해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를 HS Code

9525.30으로 신고하지 않고 다른 HS Code로 신고한 후 수입해 이 HS Code 수입실적이 감소된 것이다. 관련 수입상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카메라 및 모니터 수입량은 연간 100만~120만달러 정도로 96년도 CCTV 시스템 수입실적은 25%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CTV 시스템의 국가별 수출실적 동향을 살펴보면 극동국가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수출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EU 국가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헝가리의 CCTV에 대한 MFN 기본세율과 GSP공여국

관세는 10.6%이고,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6.4%,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헝가리의 CCTV 및 모니터에 대한 수입관세는 MFN 기본환율이 10.9%이고,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6.4%, GSP 공여국 및 CEFTA회원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 원산지에 관계없이 판매시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25%가 부과된다.

수입관세 이외에 품질규격인증(형식승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한데, 국제규격인증을 받은 제품일지라도 헝가리에서 별도의 규격인증을 필히 받아야 한다. 국제규격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요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뿐 제외대상은 절대 아니다.

헝가리의 CCTV 시스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본의 산요 및 소니, 화란의 필립스, 미국의 Belco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는 단계를 넘어 극동아시아에서 무명브랜드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제품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현지 제품별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모니터의 경우 일본산 1채널 채널 제품의 부가세 포함 소매가격은 180달러, 한국산 Picture Switching Wooju

제품은 160달러 정도이다. 카메라의 경우는 일본산 소니의 부가세 포함 소매가격이 260달러, 이탈리아산 Comerson이 175달러, 한국산 Comtec이 82달러 정도이다.

현재 헝가리 CCTV 시스템 시장은 일반 유선형태의 CCTV 시스템 보급이 일반화돼 있지만 무선방식의 CCTV 시스템이 보급돼 시공비 절감 및 케이블공사에 따른 외관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소형 모니터 및 분할 기능이 추가된 모니터, 경량화된 모니터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경쟁상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 수입상들은 판매마진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 가격에 특히 민감하다. 가격이 적절한 제품분야는 수요도 많지만 각종 브랜드가 수입돼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한국산의 직수출 물량을 확대하려면 우선 유력 수입상을 발굴한 후 대금지불조건을 완화시켜 제품 시장유통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들의 제시하는 대금지불조건은 초기 오더에서는 T/T송금, 이후는 D/A 60일 조건이 일반적이다.

현지에서 조립된 제품은 헝가리 내수시장 뿐아니라 인근 동구권 국가들에도 수출이 가능해 동구권에 대량진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 수입상 명단

- Vidikon Informatikai Kft.
H-8000 Szekesfehervar,
Palotai ut 5
Tel : (36-22)333-118
Fax : (36-22)316-103
Contact : Mr. Vegh Alajos
- Szamitatechnikai es Ugyuitels-
zervezo Rt.
H-1145 Budapest, Szuglo ut
9-15
Tel : (36-1)251-6666
Fax : (36-1)364-0282
Contact : Mr. Horvath Lajos
- Modul-Color-Technik Kft.
H-1075 Budapest, Wessel-
enyi ut 10
Tel : (36-1)322-5624
Fax : (36-1)342-0788
Contact : Mrs. Kottasz Katalin
- Budaorsi Hatteripari Szolga-
ltato Kft.
H-1136 Budapest, Hegedus
GY. ut 11-13
Tel/Fax : (36-1)359-6257
Contact : Mr. Beres Janos
- Nivelco Ipari Elektronika Kft.
H-1043 Budapest, Dugonics
ut 11
Tel : (36-1)169-8811
Fax : (36-1)169-3864
Contact : Mr. Tolgyesi Gabor
- Eurocomponents Kft.
H-1082 Budapest, Nap ut
35-41
Tel : (36-1)313-7649
Fax : (36-1)313-7207

Contact : Mrs. Nemeth Gyulane

**英, CCTV 수요확대불구 수입감소
-보급률 높아 경쟁치열 컬러카메라로
수요 이동 본격화-**

영국의 CCTV 생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96년 시장규모는 £ 37억(60억 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안 및 경호산업분야에서 CCTV의 비중은 96년에는 전체시장의 10.8%를 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경호산업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영국이 인구당 CCTV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의 수요현황을 보면 93년에 CCTV 시장은 에프터서비스 시장을 포함해 £ 1억 6,800만 시장을 형성했으나 불과 3년만인 96년에는 이보다 무려 1.4배가 증가한 £ 4억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영국 보안산업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증대는 CCTV도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간 가격이 상당히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종래 고가품으로 인식해 장착을 꺼려하던 일반 소규모 소매상에게까지 보급되는 등 수요층이 확대돼 특히 Plug and play가 가능한 신제품 등

● 수입실적

(단위 : £ 천)

국 별	1995	1996	97. 1~3
화 란	4,829	3,491	711
이탈리아	2,147	1,094	938
벨 룩 스	—	757	206
프 랑 스	—	—	321
일 본	2,985	3,311	1,746
한 국	985	1,527	483
미 국	2,547	1,079	417
대 만	672	968	769
홍 콩	—	475	151
말레이시아	—	432	65
총 계	16,653	14,310	6,317

자료 : 영국 통계청

주 : SITC 761.2(monochrome tv receivers)기준

장 및 95년 이래 매년 실시된 영국 내무부의 보급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 이러한 수요증대 추세를 더욱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CCTV 수입시장은 96년도에 £1,431만(2,400만 달러) 규모로 전년도의 £1,665만에 비해 14.1%나 감소했으며, 이와같은 감소세는 97년에도 계속돼 상반기중 전년도 실적의 44%에 불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96년의 경우 EU역내 및 역외의 비중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97년에 들어서는 역외의 비중이 62.6%를 점유함으로써 균형을 깨고 있다.

96년도 주요 수입대상국은 화란(24.4%), 일본(23.1%), 한국(10.7%), 이탈리아

(7.6%), 미국(7.5%)의 순이며, 97년도에는 일본(27.6%)이 단연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하락해 7.6%를 점하고 있다.

영국의 CCTV는 96년에 £900만(1,500만달러)이 수출돼 전년도의 £714만에 비해 25.9%가 증가했으며, 97년 상반기에는 증가폭이 매우 커서 이미 작년도 연간 실적을 능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EU역내국가가 영국의 주요 시장이며, 96년의 경우 이탈리아(23.3%), 독일(17.5%), 화란(14.0%) 등이었으나 97년에는 독일에 대한 수출이 34.2%를 점해 전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852822에 해당되는 CCTV

의 수입관세는 14.0%이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9.8%의 특혜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한국, 싱가포르, 홍콩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부과가 유예되고 있다. 이외에 수입가의 17.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대형 전자업체가 CCTV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영국업체 및 한국, 대만, 화란 등의 업체들이 시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영국의 CCTV 보급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이들의 경쟁이 매우 심하며, 따라서 가격인하와 기술개발로 경쟁을 이겨나가고 소비자의 수요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가격면에서 여전히 일본제품이 고가품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품은 중급이하의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CCTV 시장은 컬러 카메라로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시장의 50% 정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수입상 명단

○Tek Associates Ltd.

23 Stephenson Road St. Ives
Huntingdon Cambs PE174

WJ

Tel : 01480 495 496

Fax : 01480 496 228

Contact : Ms. Valerie Bush

○U M P Company Ltd.

23 Station Approach Hayes
Bromley Kent BR2 7EQ

Tel : 0181 462 0222

Fax : 0181 462 7746

Contact : Mr. Andre Lamstaems

○Utopia Electronics Ltd.

Unit 4 Bramley Business
Centre Station Road Bramley
Guildford Surrey Gu5 OAZ

Tel : 01483 894 611

Fax : 01483 894 633

Contact : Mr. Nick Webb

○Cyberline Communications

Unit5 Hatfield Way South
Church Industrial Estate
Bishop Auckland Co Durham
DH14 6XB

Tel : 01388 773 761

Fax : 01388 773 778

Contact : Mr. Geoff Harrison

○PR Systems

Devonedge Lane Charmouth
Bridport Dorset DT6 6PZ

Tel : 01297 560 839

Fax : 01297 560 047

Contact : Mr. Simon Trim

○Century 21 Consultants

88 Park Road Sale Cheshire
M33 6HZ

Tel/Fax : 0161 976 3179

Contact : Mr. R Limbachia

**H, CCTV 카메라 유망시장 부상
-방법·방범, 경영정보시스템 등 활용
범위 커-**

일본에서는 CCTV 카메라 시스템이 새로운 제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각 메이커간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CCTV 카메라시스템에 있어 보안감시외에 화상정보를 수집·전송·분석해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영정보시스템으로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각 메이커들은 기기 메이커의 하드제품의 진용정비, 응용소프트의 개발, 판매루트 확대를 포함한 영업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防犯·防炎이라는 CCTV카메라시스템의 수요는 향후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동시에 카메라를 정보입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의 보급이 서서히 늘고 있어 CCTV 카메라시스템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CCTV 카메라는 감시카메라 시스템으로 널리 보급돼있다. 은행, 소비자금융,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 빠짱코, 게임센터, 슈퍼마켓, 컨비니언스 스토어 등 유통관계, 주차장, 빌딩, 역, 공항 등으로 그 이용범위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와같은 방법·방범대책으

로서의 카메라 이용이외에 경영정보시스템으로서의 이용을 의식한 수요가 대두되고 있다. 편의점, 슈퍼 등에서 내방객의 동태를 카메라로 포착하기도 하고 적절히 상품진열하고 점포 재고 상황을 체크하는 등 그 활용범위가 광범위하다.

또한 이 기종은 내방객 분석(성별·연령층 등) 요일·시간별 내방객 분석, 점포내의 사람의 이동, 상품인기도 체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본부에 송신하고 이에 합당한 점포내 레이아웃, 상품전시방법, 전시상품 내용 결정, 점원의 시간별 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유통관계 뿐만아니라 경기장, 가라오케룸, 은행의 창구 등에서도 이 기종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 업종의 전문 메이커들은 이와같은 동향을 파악해 각 CCTV 카메라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수집을 위해 고감도 카메라, 고해상도카메라의 도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통신망과의 접속에 의한 원격 모니터링을 위해 코덱(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상호교환하는 하드웨어)나 정기화면·동작화면 전송 장치 등의 도구를 제공, INS네트워크와 접속하는 등 시스템 인데그레이션에도 주력한다.

현재 이 제품을 개발 생산중인 업체는 日立電子 등 5개회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日立電子社는 동작전송장치인 DM-NET에도 중점을 두고 개발중인데 반응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니社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위한 코덱스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대응력을 강화해 시스템 비즈니스를 전개중이며 후지쓰 제너럴社는 무선통신 전송시스템과 도킹시키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NEC는 통신과의 도킹이 중요한 테마로 기업네트워크에 중점을 둔 제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마쓰시타통신공업은 AV 코덱스의 거래에 중점을 둔 제품개발에 힘쓰는 등 일본 메이커들은 CCTV 카메라에 의한 정보시스템 수요에 매력을 느껴 제품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실정여서 이 제품을 둘러싼 개발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커자판기 특소세 부과 '반발'

-한보전기등 6개社 관세청에 심사 청구-

스티커 자동판매기 업체들이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에 반발, 법칙 대응에 나섰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티커자판기 분

과위 소속 삼원사진기기·서임기술전자·유한씨엔티 등 6개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국세청의 스티커자판기 특소세 부과에 대해 관세청에 심사를 청구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미 특소세를 추정받은 한보전기가 대표로 최근 부산 동래세관에 심사를 청구했으며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국세심판소심판청구와 법원 행정심판도 청구키로 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스티커자판기는 고급 사진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품 가운데 어떤 부분도 특소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핵심소재인 CCD소자도 국산화되고 있어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티커자판기 업체들은 일단 특소세를 납부한 뒤 한보전기와 마찬가지로 관세청 심사, 국세심판소 심판, 법원 행정심판 등을 잇따라 청구할 계획이다.

드림테크, 스티커사진 자판기 출시

자동판매기 재료 및 부품제조업체인 드림테크가 스티커사진 자판기(모델명 매직포토 100)를 개발, 출시했다.

이 회사는 96년말 자체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스티커사진

자판기의 성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필드테스트를 실시한 후 최근 출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컬러프린터를 제외하고 모두 국산부품을 채택했는데 LG하니웰의 CCD를 탑재, 해상도를 높였다. 또 동전결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코인메커니즘을 장착하지 않고 1천원권 지폐식별기를 장착했다.

배경 화면은 76종이며 사진의 종류도 4분할·8분할·16분할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스티커 자판기 다기능화 바람

-특소세 부과 따른 가격인상 대처 위해-

최근 국내 자동판매기 시장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사진스티커 자판기가 특소세 부과 대상으로 최종확정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가격인상 요인을 제품 실판매가에 반영시키는 한편 기능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유한씨엔티·에스비아이·드림테크 등 사진스티커 자판기업체들은 이 제품이 특소세 부과대상이라는 국세청의 판정에 따라 제품가격을 종전의 10~20%씩 인상했는데, 배경화면과 사진스티커를 여러가지 크기로 개발하

는 등 기능 다양화를 통해 원가 상승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사진스티커 자판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한 장의 컬러프린트 용지에 사진스티커가 16장의 작은 크기로 인쇄됐으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8분할·4분할 등 기능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배경화면과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배경화면을 넣지 않고 얼굴사진만 찍을 수도 있다.

스티커 자판기 '문제 있다'

-지폐반환기능 없이 강제판매방식 채택-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해 올해 성숙기를 맞고 있는 사진스티커 자판기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일부 부품만 국산으로 대체돼 보급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사진 스티커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자 우후죽순처럼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생겨나 치열한 시장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품은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스티커 자판기는 거의 대부분이 지폐반환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스티커 촬영을 하려 했다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천원

권 한 장만 일단 넣으면 촬영하고 스티커를 받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일종의 강제판매 방식인 셈이다.

이처럼 지폐식별기를 갖추고서도 반환이 안되는 것은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반환기능을 넣지 않은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가격이 싼 지폐식별기를 장착했기 때문이다. 국산화한 업체든, 수입업체든 특소세까지 몰다보니 원가절감을 위해선 비교적 값이 싼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도 강제판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스티커 자판기는 원자재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핵심 원자재인 컬러프린트 및 프린트용지 전량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프린트용지의 경우 일부 제지업체가 국산화할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업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일제위주의 시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커자판기사업 대기업도 '너도나도'

-현대 이어 LG·삼성·해태 등 속속 참여-

스티커 자동판매기가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 대폭 인기를

끌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자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와 일본 세가사의 합작사인 현대세가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스티커 자판기인 「프린터클럽2」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한 데 이어 LG산전과 삼성전자·해태전자 등도 각각 내년초 제품을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이들 대기업은 자체개발보다 중소기업들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인데 업체마다 이미 협력업체를 확보하고 제품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LG산전은 Y사와 손잡고 제품개발을 진행중이며 삼성전자는 K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98년 1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또 해태전자도 U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98년 3월경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이들 대기업은 97년 말까지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특소세가 부과되고 환율도 계속 상승함에 따라 출시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스티커 자판기 제조 및 판매업체는 기존의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 4사가 더해져 20여개에 달해 앞으로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복사기〉

■ **코리아제록스, 2000년 매출 4천억 목표**

코리아제록스는 최근 대규모 조직개편과 함께 디지털화·컬러화·네트워크화하고 있는 사무기기 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중기 사업계획(MRP 2000)을 확정,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코리아제록스가 발표한 「MRP 2000」은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통해 대형고속기 및 디지털·컬러사무기기 시장을 선도해 오는 2000년에 매출을 4천억원 달성하고, 수익면에서도 올해 전체매출의 3% 수준에서 8% 선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전체 사무기기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덕션시스템(PS)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대용량 인쇄프린팅 기기인 「다큐컬러」 제품을 비롯해 디지털복합기·컬러복사기·대형고속기 등을 전략제품으로 선정, 판매에 주력기로 했다.

또 이 회사는 마케팅 및 서비스 관련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능력별로 평가하는 신 인사제도를 도입, 연공서열에 따른 기존 인사제도를 능력 위

주로 전환하고 전사원을 대상으로 인재육성 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복합기 시장 '기열'**

-롯데캐논, 코리아제록스, 신도리코 3사-

디지털 복합기기 제조업체들의 시장선점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롯데캐논·코리아제록스·신도리코 등 주요 복사기업체들은 최근 복사기와 팩스·프린터기능 등을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복합기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판촉전에 돌입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들어섰다.

롯데캐논은 최근 1천2백dpi의 고해상도를 갖춘 디지털복합기 「GP-215」를 개발, 안산 공장에서 양산에 나섰다. 또 이 회사는 디지털 복합기의 제품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GP-215의 후속 기종인 「GP-215F」 「GP-215FP」 등을 분기별로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캐논은 디지털 복사기를 처음으로 출시하는 만큼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 5백여개 대리점 사장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제품발표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96년부터 디지털 복합기시장에 진출한 코리아제록스는 기존에 출시한 디지털 복합기 「에이블」시리즈 4개 기종에 이어 분당 50여장을 출력할 수 있는 고속 디지털 복합기를 내년에 선보이고 디지털 복합기 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코리아제록스는 최근에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의 디지털복합기 판매경험을 기반으로 전체품의 디지털화, 전사원 및 대리점의 디지털 마인드 확립을 통해 강력한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객 세분화 전략을 마련하고 고객의 기기 사용환경과 비용 및 생산성을 집중 분석하는 이른바 「솔루션 세일즈」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코리아제록스는 올해 자사의 디지털 복합기인 에이블 제품이 조달청에서 선정한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것을 계기로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어 97년말까지 2천5백여대, 내년에는 4천여대의 디지털 복합기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도리코도 최근 개발한 4백만원대의 디지털 복합기 「시그마 7700」을 출시해 전국 6백여개 대리점을 통해 판매에 나서는 한편 제휴처인 일본 리코사의 전세계 유통망을 이용해 수출에 나설 계획이다.

복사기업체들이 이처럼 디

지텔 복합기 주도권 경쟁에 나섬에 따라 연말을 기점으로 복사량 및 팩스 송수신량이 많은 건설과 광고 및 디자인업체, 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확대돼 내년에는 전체 복사기시장의 10% 이상을 이 디지털 복합기가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레이저>

하나기술, (주) 금강에 고풍력 레이저 천공시스템 공급

레이저 가공시스템 전문업체인 하나기술은 최근 금강과 독자 개발한 고풍력 Nd:YAG 레이저 천공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출력 Nd:YAG 레이저 천공시스템은 지름이 약 8백 mm, 두께가 5mm인 실린더형 합금재질의 금속면에 1만8천개의 미세한 구멍을 10시간 동안 연속으로 천공하는 장비로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세계적으로 3~4개 업체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금강에 납품할 이 시스템은 레이저발전기, 빔 전송장치 및 집광장치, 가공테이블, 시스템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Nd:YAG 레이저가공기 '인기'
-97년 시장 370억 규모로 팽창-

Nd:YAG 레이저 가공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등 핵심 공장 자동화(FA)산업은 물론 레이저 가공기 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CO₂레이저 가공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반해 Nd:YAG 레이저 가공기 시장 규모는 95년 2백억원, 96년 2백20억원에 이어 97년에는 무려 3백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Nd:YAG 레이저 가공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은 CO₂레이저 가공기가 주로 절단에만 사용되는 것과 달리 미세용접·미세천공·미세절단까지 가능함은 물론 CO₂레이저 가공기의 경우 빔을 전송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필요했으나 Nd:YAG 레이저 가공기는 광 파이버를 사용해 가공할 수 있는 등 가공의 정밀성과 편리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반도체산업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업계를 중심으로 레이저 마킹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Nd:YAG 레이저가공기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레이저 마킹이란 레이저 빔을 이용해 대상물체에 원하는 문자나 그림을 각인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공정 중 반도체 칩에 칩의 종류나 메이커의 로고 및 상호, 조립된 날짜 등 각종 정보를 새겨 넣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도용이 불가능하며 초당 수백자를 극히 작게 새겨 넣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하나기술·코러스레이저·원다레이저·동진일렉트로빔 등 레이저 가공기 업체들은 Nd:YAG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하고 회사마다 자체 개발 및 외국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1백W 미만의 저출력 제품과 1백W 이상의 중출력 제품을 두루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전자·반도체업계를 중심으로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특수 전용기 레이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나기술은 미세절단 및 미세용접은 물론 광파이버를 이용한 시간 분할로 다중작업이 가능하고 로봇을 결합해 시스템 이상 상태와 안전에 대한 자동감시, 대형 공작물 가공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로봇 Nd:YAG 레이저 가공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CO₂레이저 가공기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삼성항공과 한광은 Nd:YAG 레이저 가공기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CO₂레이저 가공기 외에도 Nd:YAG 레이저 가공기 영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술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레이저 임가공업체 '우후죽순'

-정밀부품 수요 급증 힘입어 150여개
로 늘어-

레이저 임가공업체가 레이저 가공기 산업 성장의 견인차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94년을 기준으로 50여개에 불과했던 레이저 임가공업체들이 최근 3배 이상 증가한 1백50여개로 늘어남에 따라 시장주도세력이 자동차·부품·전자업체 등 레이저 가공기 활용업체에서 영세 규모의 임가공업체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처럼 최근들어 레이저 임가공업체가 급증하는 것은 자동차·반도체·전자·항공우주산업 등 정밀부품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데다 대우중공업·삼성항공 등 대기업과 한광·하나기술 등 중소기업들이 다수 등장,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들어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당 몇억원씩이나 하는 값비싼 장비를 도입하기 보다 일감이 있을 때만 임가공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업체들의 판단과 레이저 가공기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진 것도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레이저 가공은 시제품 개발시 금형제작이 필요없고 제작비용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데다 비접촉 가공으로 면조도가 우수하고 복잡한 형상도 쉽게 가공할 수 있어 소량 다품종 생산에 가장 적합한 가공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중공업·삼성항공·한광·하나기술 등 레이저 가공기업체들은 임가공업체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 영세한 업체들이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는데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빠른 납기를 생명으로 하는 임가공업체의 특성상 신속한 애프터서비스 지원체계 마련과 운전자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포항공대·한통 공동, 새 반도체레이저 개발

-소모전력 기존의 1천분의 1-

기존 레이저 다이오드의 소모 전력을 1천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레이저가 포항공대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포항공대 광전자연구실 권오대 교수팀은 한국통신과의 광교환기 공동개발 연구과정에서 기존 레이저 소자에 비해 1천분의 1에 불과한 마이크로암페어(μ A)급 갈륨비소 반도체 레이저소자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한 반도체 레이저는 기존의 표면방출형 레이저(VCL)가 양자우물에서 레이저가 발진되는 것과 달리 양자우물의 둘레인 양자테에서 레이저가 발진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양자테의 레이저 발진현상은 아직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다고 권 교수는 밝혔다.

반도체 레이저의 소모전류를 마이크로암페어급으로 낮출 경우 역시 마이크로암페어급에서 작동하는 실리콘 반도체 칩에 레이저를 집적할 수 있어 별도의 레이저 소자가 필요없게 된다.

한편 한국통신과 포항공대는 이번에 개발한 레이저 소자에 관한 국내 및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한편 98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광전자학회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광학기기>

영화OTS, 라미네이팅기 美에 수출
-총7대 100만달러 상당-

인쇄회로기판(PCB)장비업체인 영화OTS제조(주)가 미국 유수의 PCB업체인 포토서킷(Photo Circuit)에 자동커팅 라미네이팅기를 대량 공급한다.

영화OTS는 지난 11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프로덕트로니카 97」전시회에서 미국 굴지의

PCB장비업체인 멀티테크사의 페린데 사장과 라미네이팅기 수출계약을 체결, 포토서킷에 공급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화OTS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29일 1호기를 선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98년 7월까지 총 7대분 1백여만달러 상당의 라미네이팅기를 포토서킷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또 이번 멀티테크와의 계약을 통해 내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 최대 PCB장비

전시회인 「IPC쇼」에도 공동부스를 마련, 출품기로 합의했다.

멀티테크는 드릴·라우터·인쇄기 등 PCB장비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포토서킷은 미국의 MLB전문업체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 라미네이팅기 시장은 일본 하쿠도와 미국의 듀폰·웨스트 마그너 등이 석권하고 있다. 라미네이팅기는 PCB제조시 드라이필름공정의 핵심장비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휴식공간/연극

극단 산울림,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사고사(事故死)」

- 공연일시 : 1998년 1월 15일~3월 15일까지(화·수·목 밤 7시, 금·토·공휴일 : 3시/7시, 일요일 : 3시, 월요일은 쉽니다)
- 원작 : 다리오 포
- 연출 : 채윤일
- 출연 : 안석환, 정재진, 조성희, 이창직, 이대연, 하성민, 이인호
- 입장료 : 일반 2만원/학생 1만원
- 문의처 : 소극장 산울림(TEL : 334-5915/5925)
- 줄거리 :

무대는 밀라노시 경찰국 4층 형사부장실과 5층 정보부장실.

공-사직 사청으로 12번이나 체포된 일이 있는 국립정신병원에서 공인받은 미치광이가 또 다시 정신과 의사에다 대학교수로 행세하다 체포되어 심문받으면서 연극은 시작된다. 취조하는 형사부장을 해박한 법률지식과 황당무계한 꾀변으로 놀리다가 쫓겨난 미치광이 어릿광대가 다시 형사부장실로 숨어 들어 왔다가 우연히 열차와 은행 폭파사건의 혐의자로 체포되어 5층 정보부장실에서 심문 받던 중 자살발작 증세가 일어나 창밖으로 뛰어내려 투신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한 무정부주의자의 재판기록과 경찰수사기록을 훑쳐 보게 된다.

미치광이 어릿광대가 이번에는 반대조사를 하려고 밀라노시 경찰국에 파견된 고등법원 판사로 변장하고 무정부주의자가 자살했다는 사건의 현장인 5층 정보부장실에 나타나는데 …….

무정부주의자의 죽음은 결국 정치적 책략의 재물이었음이 밝혀지는데 그것을 밝혀내는 방법과 과정에서 「다리오 포」는 단연 독창적이고 기발하다.

직권 사청과 변신의 귀재인 미치광이 어릿광대(없음) 밀라노시 경찰국에 투입시켜, 미친 어릿광대를 진짜 고등법원판사로 착각한 시경국장, 정보부장으로 하여금 무정부주의자를 고문 처사시킨 자백을 실연을 통해 받아내고, 그들과 4층 형사부장간에 내분을 일으켜 그들의 추악한 티락과 음모를 속속들이 털어놓게 만든다.

결국은 그들 스스로 자기 팔목에 수갑을 채우고 현직 대통령을 미치광이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뒤집기의 절정에까지 이르는데 ….